



즉시 배포용: 2017년 4월 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전역의 역사적 부지를 복구하는 뉴욕주 주도 국가적 투자 발표
2013년 이후로 역사적 부지 투자에 30억 달러 이상의 복구 세금 공제 혜택 부여
프로젝트의 2/3가 업스테이트 뉴욕의 역사적 상업 지구 활성화에 도움

이번 투자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센트럴 뉴욕 부흥(CNY Rising)” 및 “서던 티어 도약(Southern Tier Soaring)” 프로젝트 보완.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 청사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뉴욕주는 복구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부지 복구 프로젝트 완료를 국가적으로 주도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주지사가 국가 복구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래로,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은 역사적 부지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장려해 왔습니다. 2016년, 주 전역의 역사적 건물을 복구하기 위해 주 및 연방 신용 조합은 7억 4,800만 달러의 투자를 창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구 세액 공제는 활용도가 낮은 역사적 건물에 투자하고 뉴욕 전역 커뮤니티를 위한 랜드마크 초석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유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 경제 개발 도구임을 증명하며, 우리는 뉴욕주의 역사적 부지를 보존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로체스터 시내 중심부의 2억 달러 규모의 복구 프로젝트인, 역사적인 시블리 스퀘어(Sibley Square)에서 열린 2017년 뉴욕주 문화재 보존 컨퍼런스(New York Statewide Preservation Conference)에서 세금 공제 마일스톤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블리 스퀘어(Sibley Square)는 2013년부터 복구 세금 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핑거 레이크스의 상업 재개발 프로젝트 88개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2/3 이상이 업스테이트 뉴욕 커뮤니티 내 위치하고 있으며,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센트럴 뉴욕 부흥(CNY Rising) 및 서던 티어 도약(Southern Tier Soaring) 경제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 정부 복구 세금 공제는 연방 복구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장려합니다. 이 두 세금 공제는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New York 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혹은 등재 절차 중인 수입 창출 부지 소유주의 적합한 복구 지출액에 2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07 년 이래로 주 세금 공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했지만, 그 제한으로 인하여 개발업자들은 업스테이트 뉴욕의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연방 또는 주 세금 공제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2013 년 Cuomo 주지사는 부지 소유주가 뉴욕주 세금 납부 의무가 없는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맺어 세금 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환급 제도는 뉴욕주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투자자 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프로그램을 2019 년까지 연장하여, 프로그램의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 년 연방 정부 회계연도에만 주 정부 역사 보존 사무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SHPO)은 2 단계 신청으로 알려진, 건설 단계 중인 또는 건설 단계로 넘어가는 중인 7 억 3,200 만 달러의 상업 복구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3 단계 신청으로 알려진, 7 억 4,800 만 달러 규모의 완료된 복구 프로젝트 검토를 다른 어느 주보다 빠르게 마감하였습니다. 2013 년 이래로, SHPO 는 역사적 구조물 복구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이용하려는 300 개 이상의 2 단계 신청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 및 중산층 주택 1,900 채를 포함하여, 5,500 채의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창출하였습니다. 300 개의 2 단계 신청서 중 200 여 개 이상이 업스테이트 개발 프로젝트용입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커미셔너 Rose Harve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보존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뉴욕주 전역의 수백 개 랜드마크 건물을 활성화하고, 고숙련 인력을 위한 현지 일자리를 수천 개를 창출했으며, 뉴욕 주민에게 자부심을 불어 넣어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환경은 미국 역사에서의 뉴욕주의 역동적 역할의 놀라운 예입니다. 우리의 과거 자산을 복구하려는 개발업자와 부지 소유주들에게 이 역사 보존 세액 공제는 뉴욕주의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 세무 커미셔너 대행(Acting 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 Nonie Mani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지구 복원 세금 공제는 뉴욕주 및 지역 커뮤니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물 복원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타 활성화 이니셔티브와 함께 이번 세액 공제로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방치된 랜드마크에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NYS HCR) 커미셔너 RuthAnne Visnauska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 보존 세액 공제는 다른

공공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의 특성을 복원하고 꼭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창출합니다. 역사보존 세액공제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아래, HCR은 파트너와 협업하고 이러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웃 주민을 재연결하고, 비어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복원하며 커뮤니티에 새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뉴욕주 보존 연합회(Preservation League of New York State) 회장 Jay DiLorenz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보존 세액 공제는 인근 학교에서부터 제분소 및 공장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비어있는 역사적 부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뉴욕주 프로젝트는 뉴욕주 복원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연방 세액 공제까지 이용 가능하며 적합한 복원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업자는 도전적인 복원 프로젝트 시행 시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뉴욕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웨스턴 뉴욕 랜드마크 협회(The Landmark Society of Western New York) 전무이사 Wayne Goodm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보존 세액 공제 프로그램보다 우리의 영원한 문화유산과 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연결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는 없습니다. 웨스턴 뉴욕 랜드마크 협회(The Landmark Society of Western New York)는 이러한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액 공제와 차후 경제적 혜택을 위한 기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국가 유적지 등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는 경제 발전에 있어 보존의 필수적 역할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 랜드마크 보호 단체(The New York Landmarks Conservancy) 의장 Peg Bree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및 주 역사 보존 세액 공제는 할렘의 아폴로 극장(Apollo Theater)과 같은 큰 랜드마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브루클린, 어퍼 맨해튼 및 잭슨하이츠의 중산층 주택 소유주 12 명이 주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SHPO가 승인한 지역 “2 단계” 세액 공제 프로젝트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턴 뉴욕- 적합한 복원 비용 5억 3220만 달러가 확인되어 88개 프로젝트 승인됨.

핑거 레이크스- 적합한 복원 비용 2억 8970만 달러가 확인되어 29개 프로젝트 승인됨.

서던 티어- 적합한 복원 비용 1억 1360만 달러가 확인되어 32개 프로젝트 승인됨.

센트럴 뉴욕- 적합한 복원 비용 2억 7200만 달러가 확인되어 27개 프로젝트 승인됨.

노스 컨트리- 적합한 복원 비용 3,550 만 달러가 확인되어 10 개 프로젝트 승인됨.

모호크 밸리- 적합한 복원 비용 4,040 만 달러가 확인되어 8 개 프로젝트 승인됨.

주도 지역- 적합한 복원 비용 2 억 6,800 만 달러가 확인되어 63 개 프로젝트 승인됨.

미드 허드슨- 적합한 복원 비용 4,390 만 달러가 확인되어 26 개 프로젝트 승인됨.

뉴욕시/롱아일랜드- 적합한 복원 비용 13 억 9,000 만 달러가 확인되어 55 개 프로젝트 승인됨.

세금 공제 프로그램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록된 소득 발생 부지의 소유주는 중요한 역사 부지 복원을 위해 20%의 연방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복원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복원 작업은 내무부 장관의 복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연방 복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승인된 소득 발생 부지의 소유주는, 해당 부지가 정식 인구 조사 지구로 확인된 연방 인구 조사 지구에 위치하고, 중소득 가구거나 뉴욕주 평균 가구 소득 이하일 경우 추가 주 세액 공제 자격을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소유주는 최대 500 만 달러까지 적합한 복원 비용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